

설득과 논증 *

—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적 논증 이론 —

한석환 * *

- I. 설득과 논증
 - 1. 수사학의 목표
 - 2. 설득의 여러 수단과 논증
- II. 수사적 논증 대 과학적 논증
 - 1. 수사적 논증의 적용영역
 - 2. 수사적 논증의 표현방식
- III. 수사적 논증의 종류
 - 1. 개연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추론
 - 2. 표지에서 출발하는 추론
- IV. 맺는말

I. 설득과 논증

1. 수사학의 목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체계에서 논증 이론이 차지하는 위치는 각별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논증 이론이 수사 이론의 핵심이어야 한다. 수사적 논증에 관해 배울 게 없는 수사학 교본이 있다면 그것은 교본으로서 함량미달이다. 다른 수사 수단에 비하여 논증이 두드러진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독특한 수사학 이해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해는 다른 분과과학의 기능과 성격이 그렇듯이 그의 과학이론에 따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를 따를 때 수사학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가. 아마도 수사학이 시학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는 대답이 제일 먼저 나오지 싶다. 수사학과 시학은, 하나는 결과물이 산문이고 다른 하나는 운문이라는 정도가 다를까, 둘 다 문학적 결과물의 구성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수사학 이해는 결코 아리스토텔레스와 어울리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시학과 공유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우리가 수사학을 끌어다 쓰는 목표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말하면 수사학의 목표는 형식도 깔끔한 연설의 작성이 아니라 설득하는데 있다.¹⁾ 시학과 달리 수사학은 제작적 과학이 아니다. 그 과학성(technē)으로 보면 수사학은 변증법과 유사하고(1354a1 이하, 1356a30-31, 1359b11) 그 기능에서는 정치학의 보조과학에 해당한다.²⁾ 이것이 수사학의 과제를 규정하는 데두리이다. 이렇게 보면 수사학은 정치학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해야 할 듯싶다. 과연 수사학의 과제는 무엇인가.

수사학의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치학의 목표부터 살피는 게 순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론과학—존재론, 자연학, 수학—의 목표(telos)는 자기목적적인 순수인식이다. 이에 반하여 실천과학과 제작과학의 목표는 각각 과학 외적인 것이다. 제작과학의 목표는 그 과학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는 작품이다.³⁾ 실천과학, 즉 정치학의 목표는 행동(praxis)이다.⁴⁾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적 논구들에서 다뤘던 덕들에 부응하는 행동이 그것이겠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학의 목표는 '좋은 행동'(eupraxia), 즉 최고선(eudaimonia)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행동이다. 그

* 이 글은 「서구의 수사학 전통」이라는 주제로 모인 2005년도 한국수사학회 가을철 학술대회(11월 12일, 고려대학교)에서 읽은 것이다. 당시 논평을 해준 김현 박사(서울대 서양고전학과)에게 감사한다.

** 송실대 철학과 교수

1) 수사학의 목표에 대해서는 J. Sprute, *Die Enthymemtheorie der aristotelischen Rhetorik*, Göttingen 1982, 32-41 참조.

2)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4b2-3 참조. 수사학의 다른 과학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석환, 「수사학의 학적 위상」, 『철학연구』 67 (2004), 5-23 참조.

3) 『천체론』 306a16 참조.

4)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5a5-6, 1103b26-30, 1179a35-b2 참조.

렇다면 정치학의 보조과학으로서 수사학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도 바로 그러한 최종목표일 것이다.

그러면 수사학은 어떤 의미에서 에우다이모니아, 즉 인간을 위한 행복의 실현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는가. 민회나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회나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수사학은 에우다이모니아의 실현에 역행하는 도덕적으로 나쁜 목적을 위해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과학들도 함께 갖고 있다(1355b2-7). 수사학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가치중립적이다. 그것이 좋은 것(善)에 이바지하느냐 나쁜 것(惡)에 이바지하느냐는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달려 있을 뿐이다. 본래적으로 좋은 수사학도 없고 본래적으로 나쁜 수사학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소피스트적 논증(sophistikē technē)이라는 특수분과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가치중립적인 변증법을 부정(不正)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소피스트일 뿐이다(1355b17-21). 그러므로 수사학이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목적은 오직 설득에 있을 뿐이다. 수사학은 수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 설득수단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2. 설득의 여러 수단과 논증

설득수단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기술적인 것과 기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눈다(1355b35 이하). 기술적이지 않은 설득수단(pisteis atechnoi)은 연설가의 수중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수단이요, 연설가가 그냥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수단이다. 법률, 증언, 계약 등이 그에 속한다. 그에 반해서 기술적인 설득수단(pisteis entechnoi)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연설자 자신이 강구해야 하는 수단이요, 연설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설득수단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곧 수사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적인 설득수단으로 수사적 논증(logos), 감정 자극(pathos), 성품 연출(ēthos)을 꼽는다(1356a1 이하).

먼저 감정 자극과 성품 연출의 경우를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둘을 사안과 무관한 수단으로 간주한다(1354a11 이하, 1354b22 이하). 이를테면 재판관을 화나게 만들거나 재판관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법률안을 제출한 정치가가 자신의 성품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것 등이 그런 예이다. 이런 것은 사안과 상관없는 영향력 행사 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수사학이 사안과 상관없는 수단을 단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왜 그런가. 평균적인 청중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아테네에서 그랬듯이 법정에서 사안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헌법이 불량하기 때문이다(1403b31-1404a8, 1354a16-24). 그래서 수사학이 정치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 이상적인 수사학을 세워 놓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쓸모 있는 수사학이 되려면 현실 정치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현실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사안과 무관한 설득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수사 프락시스에 잘 어울리는 것이라면 흠결이 없는 정치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사안과 무관한 설득수단은 보조적 기능을 갖고 있다. 사안과 무관한 설득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논증적 수단을 통해 청자의 설득을 피하는 자리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이바지한다.

설득수단들 가운데서 각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논증적 수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한 주장에 제일 먼저 설득되는가, 즉 믿음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 성찰한 결과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과연 우리는 언제 어떤 것에 대해 아주 높은 정도로 확신을 갖게 되거나 설득되게 되는가. 그것을 증명된 것으로 간주할 때이다(1355a5 이하). 증명은 이처럼 설득에 효과가 큰 수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수사적 증명은 삼단논법적 논증의 일종이거나 토포스적 논증의 일종이다. 이러한 수사적 삼단논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튀메마(entymēma)라고 부른다. 엔튀메마는 설득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강력한 것'(kyriōtaton tōn pisteōn)이다.⁵⁾ 이처럼 논증 이론은 아

5) 『수사학』 1355a7 이하. 『수사학』 제1권 제1장에 따르면 엔튀메마는 심지어

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그에게 있어서 수사학은 변증법의 ‘짜패’(antistrophos)이다. 변증법은 원래 주어진 전제에서 출발하여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논증한다는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변증법과 수사학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일상의 비전문적 논증을 방법화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1354a1-11). 그러나 변증법만 놓고 본다면 그런 입장이 빈틈없이 잘 들어맞지만, 수사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에서만 들어맞을 뿐이다. 수사학의 목적은 앞서 지적했다시피 설득에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논증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설득수단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설의 표현과 구성, 실연방식까지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이 이런 사항들을 다루는 데서 결정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관건은 형식 완결적인 연설의 작성 같은 게 아니라 청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의도된 영향이다. 수사적 논증, 즉 엔튀메마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가장 중요한 설득수단이다. 그러나 유일한 설득수단은 아니다.

II. 수사적 논증 대 과학적 논증

1. 수사적 논증의 적용영역

엔튀메마는 삼단논법의 일종이다(1355a6-7).⁶⁾ 다른 삼단논법과 구별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튀메마를 수사적 삼단논법(rhētorikos syllogismo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356b5). 엔튀메마의 특수성은 과학적 삼단

수사학이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수단인 것 같이 보인다. 물론 이런 입장이 제1권 제1장 이후에서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엔튀메마의 특수한 지위, 즉 우월한 지위는 뒤에 가서 다뤄진 비(非)논증적 설득수단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사학』 제1권 제1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논구와 비교할 때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A. Hellwig, *Untersuchungen zur Theorie der Rhetorik bei Platon und Aristoteles*, Göttingen 1973, 107 이하 참조.

6) 삼단논법 개념에 대해서는 G. Patzig, *Die aristotelische Syllogistik*, 1969³, 11-24 참조.

논법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비교를 『수사학』에서 되풀이하여 내비치지만 빈틈없이 수행하지는 않는다(1355a12 이하, 24 이하; 1357a7 이하). 엔튀메마는 적용영역과 표현방식에서 과학적 삼단논법과 다르다.

적용영역의 특수성은 엔튀메마의 전제의 성격을 규정한다. 『분석론 후서』에 의하면 논증적 삼단논법, 즉 과학적 삼단논법은 어떤 것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립하는 것이 일정한 의미에서 필연적임을 입증하는 데 이바지한다. 따라서 과학적 삼단논법의 적용영역은 필연적인 것(anankaia)에 관한 언명들이다. 이에 반해서 엔튀메마는 일차적으로 필연성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태들에 관한 주장을 정초하는 데 쓰인다(1357a22 이하). 필연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립하는 것은 자체적으로(kath' hauto) 존재하는 것의 부류(genos)에 속하며,⁷⁾ 근본원리(archē)가 문제로서 있지 않는 한 각 부류에 해당하는 과학의 특수한 원리와 보편적 공리로부터 삼단논법적으로 도출된다.⁸⁾ 그런 식으로 도출되는 필연적인⁹⁾ 사태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2직각이라는 특성이다.¹⁰⁾ 이것은 특정한 공간적 크기의 필연적인 성질이며 그러한 것인 한에서 기하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우연적인 사태에서는 엄밀한 과학적 정초가 불가능하다.¹¹⁾

과학과는 반대로 수사학은 기술적인 결정 절차가 없고(1357a2), 대체로 혼자서 숙고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의함으로써 수용되거나 배척되는 사태 또는 취하게 될 조치에 관한 주장을 다룬다. 그런 협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연설가는 설득수단을 사용하는데 엔튀메마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협의(bouleuesthai)라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과 관계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1357a4-7).¹²⁾ 최소한 그런 것에 관해 협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보여야 한다. 이미 분명하게 결정되어

7) 『분석론 후서』 75a28-31 참조.

8) 『분석론 후서』 75a39-75b2 참조.

9) 여기서 얘기되는 필연성 개념의 논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G. Patzig (1969), 25-50 참조.

10) 『분석론 후서』 73b30-32; 86a25-27; 91a3-4.

11) 『분석론 후서』 88b32 이하 참조.

12) 『니코마코스 윤리학』 1139a13-14 참조.

있거나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분명하게 결정될 수 있는 대상에 관해 협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기 때문이다. 엔튀메마의 본래적인 적용 범위는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endeichomena allōs echein)에 관한 주장이다(1357a13-15). 혹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결정될 수 있는 개별적인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상 다른 식으로 있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언명이 그런 것이겠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정의롭다”는 주장을 보자. 이 주장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도 설득하기 위해 충분히 정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필연적으로 속하는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부수적으로(kata symbebēkos) 따라다니는 성질이다.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에 관한 주장을 정초하는 것은 대체로 해당 사태의 개연성만 보증할 수 있을 뿐이다.¹³⁾ 어떤 것이 개연적이라 함은 ‘참과 유사하고’(homoion tō alēthei: 1355a14) ‘그럴듯하다’(eikos: 1357a34)는 것으로서 대체로 일어나거나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체로 같은 양태를 띠는 것’(to hōs epi to poly ginomenon[1357a34], ta hōs epi to poly symbainonta[1357a27])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개연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한 상관빈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사태가 개연적이라 함은 여기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그러한 양태를 띤다고 믿고 있는 유형에 그 사태가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그러한 양태를 띤다고 상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개연성의 정도를 묻는 물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다.¹⁴⁾ 이것은 이미 한 사태의 개연성이 수사학의 규칙에 따라 어떻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가에 잘 드러나 있다. 개연성의 확인 작업은 ① 문제의 사태를 정초하는 언명과 ② 그 타당성이 이미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 언명 또

13) 엔튀메마 형식으로 정초된 주장이 확실성을 띠는 것은 특정 표지추론, 즉 테크메리온 엔튀메마의 경우뿐이다. 『분석론 전서』 하권 제27장; 『수사학』 1357b1-21 참조.

14) 개연성의 정도라는 개념은 반론(enstasis)을 논의하는 데서만 역할을 한다. 『수사학』 1402b33-1403a1 참조.

는 하나나 그 이상의 실례를 끌어들이으로써 그 타당성이 확보되는 보편적 언명¹⁵⁾간의 논리적 관련성에 대해 엔튀메마 형식으로 수행되는 증명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⁶⁾ 여기서 전제되는 보편적 언명들은 대체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인 공리와 원리의 의미로 자명한 것도 아니다. 이른바 통설(endoxa), 즉 수사학의 틀 안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어떤 이유에서든 참으로 간주되는 견해가 문제의 보편적 언명이다(1402a33 이하, 1357a12 이하). 통설은 그저 속견(dokounta)¹⁷⁾일 뿐이어서 통설에는 과학적 명제들이 갖고 있는 확실성이 없다. 통설에서 주장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달리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과학이론의 맥락에서는 항상 개연적일 뿐이다.

어떤 한 정립(定立)이 엔튀메마 형식으로 정초되는 데 쓰이는 언명들이 대체로 개연성의 가치만 갖고 있다는 것, 즉 그것들이 개연적인 것들(eikota)이라는 것은(1357a32, 1402b15 이하) 수사적 논증의 설득력에 대해 결코 불리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평범한 사람들로 간주하는(1357a11 이하) 평균적인 청중에 대해 엔튀메마 형식으로 정초된 정립들은 확실한 것이나 진배없다. 숙고할 때 통설에 의존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지배적인 견해들과 부합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일 게 뻔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배적인 견해가 그들 자신의 견해인 한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야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배우지 못한 단순한 사람과 교섭하는 데서는 엔튀메마 형식의 논증방식이 과학적 논증방식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 단순한 사람이 과학적 증명은 따라올 수 없지만(1357a3 이하, 10 이하; 1395b25 이하) 엔튀메마 형식으로 제공되는 논변에는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엔튀메마 형식으로 정초된 정립이 갖는 개연성은 항상 반론(enstaseis)을 통해 문제의 수사적 논증이 공격을 받을 여지(1402b28, 1402b21-22),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러한 반론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경우

15) 삼단논법적 구조에 따르면 이러한 언명은 대전제 자리를 차지한다.

16) 하나나 그 이상의 실례를 끌어들이는 논증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증추론(paradeigma)이라 부른다. 『수사학』 1402b16-18; 『분석론 전서』 하권 제24장 참조.

17) 『토피카』 100b21-23; 『수사학』 1402a33 이하 참조.

에 따라서는 반론에 반론을 펼 수 있으려면 수사적 논증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 수사적 논증의 표현방식

엔튀메마는 표현방식에서도 과학적 삼단논법과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엔튀메마는 거의 전제가 없다시피 하며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삼단논법, 즉 제1격 삼단논법(*prōtos syllogismos*)의 전제들보다 적은 수의 전제들로 구성된다(1357a16). 청중들이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쉽게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사적 삼단논법에서는 생략된다. 이를테면 도리우스가 우승하면 월계관을 받는 경기에서 이겼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면, 도리우스가 올림픽 경기에서 이겼다고 말하면 된다(1357a19-21). 올림픽 경기 상품이 월계관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전제가 생략된 엔튀메마이다. 대전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제1권 제2장(1357b14-16)에서 테크메리온을 예시하기 위해 인용했던 예들에도 빠져 있다. 『수사학』 제2권 제2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노메(*gnōmē*), 즉 격언 같이 간결한 처세훈(訓)에서 주장되는 것에 이유(*aitia*)를 가져다 붙이면 그노메에서 엔튀메마가 성립한다고 말한다(1394a29-34). 이렇게 보면 결론과, 인용된 예들에서 각각 소전제¹⁸⁾에 해당하는 이유를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엔튀메마의 형식적 조건인 것 같이 보인다. 독립적인 문장으로 이유가 제시되는 그노메는 엔튀메마의 부분(*meros*)이라고 하지만, 주장의 근거가 그 속에 함께 표현된 그노메는 그저 엔튀메마적(*enthymēmatikai*)이라고만 할 뿐, 엔튀메마의 부분이라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1394b17-26). 이를테면 “항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¹⁹⁾는 엔튀메마적인 그노메인 데 반해서, “인간들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는 돈의 노예이거나 요행수의 노예이기 때문이다”²⁰⁾는 엔튀메마를 나타낸다(1394b2-7).

18) 엄밀히 말하면, 자명하기 때문에 발설되지 않은 대전제도 이유(*aitia*)에 속한다.

19) 에우리피데스, *Troades* 1051.

20) 에우리피데스, *Hecuba* 864 이하.

엔튀메마는 그 구조가 언어적 표현에 이미 시사되어 있어야 하지만 과학적 삼단논법에서처럼 완벽하고 일목요연할 필요가 없는 삼단논법이요 그러한 완벽함과 일목요연함이 있다면 그저 유리할 뿐인 삼단논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다른 대목에서도 피력하는데, 똑같은 것이 그노메로 표현되기도 하고 엔튀메마로 표현되기도 한다(1418b33-39). 엔튀메마의 구성은 전적으로 청중의 수용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연설가에게 지침이 되는 관점은 논증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이다(1400b29-33, 1410b21-28).

Ⅲ. 수사적 논증의 종류

1. 개연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추론

엔튀메마를 꾸미는 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4가지 가능한 구성형식을 구별한다. 개연적인 것(eikos), 실례(paradeigma), 진짜 표지(tekmerion), (가짜) 표지(sēmeion)가 그것이다(1402b13-14). 이것들은 각각 수사적 논증에 4가지 종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실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논증’ 또는 예증추론은 대전제가 통설(endoxon)이 아니다. 예증추론은 하나나 그 이상의 실례를 통해 개연적이게 된다. 바로 그런 한에서 그것은 ‘개연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논증’과 구별된다. 또 ‘진짜 표지’는—넓은 의미의—‘표지’(sēmeion)의 특수한 경우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튀메마를 ‘개연적인 것에서 출발하거나 표지에서 출발하는 추론’(syllogismos ex eikotōn ē sēmeion)으로도 정의한다.²¹⁾

‘개연적인 것’(eikos)이란 무엇인가. 『수사학』(1357a34-b1)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개연적인 것은 대체로 그러그러한 양태를 띠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정의하듯 단적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의 영역에서 그렇다. 여기서 개연적인 것은 그 상대항과 보편이 특수와 관계하듯 그렇게 관계한다.” 『분석론

21) 『분석론 전서』 하권 제27장, 70a10.

전서』에서 개연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전제’(protasis endoxos)로 이해된다.²²⁾ 예를 들면 “매를 맞으면 아이들은 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견해가 될 것이다.²³⁾ 이 예는 아이들의 행태가 고정적이지 않은 한에서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ta endechomena allōs echein)의 영역에 속한다. 매를 맞으면 아이들은 대체로 운다. 그러나 매를 맞았다고 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우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맞더라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견뎌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보편과 특수 관계는 그럴듯한 것—매를 맞으면 아이들은 운다는 상정—이 개별적인 경우—특정한 아이가 매맞는 것—와 맺고 있는 삼단논법적 관계에 대응한다. 매를 맞으면 아이들이 대개는 운다는 게 사실이라면 특정한 아이가 매를 맞게 되면 아마도 울 것이라는 것 역시 사실이다.²⁴⁾ 특정한 아이가 특정한 시점에 매를 맞았다는 것이 확실하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믿음이 가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바로 그 시점에 울었다는 주장은, 매를 맞으면 아이들은 운다는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설득력을 갖게 된다.

2. 표지에서 출발하는 추론

위의 예에서는 매를 맞은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매를 맞은 사람이 정말로 어린아이인지 아닌지가 미심쩍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문제의 사태에 대한 표지(sēmeion)를 갖게 되면 그 사태의 존립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확신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문제의 인물이 어린아이들만 갖는

22) 『분석론 전서』 70a3-4 참조.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연적인 것’(eikos)을 “사람들이 대체로 이리이러하게 일어난다거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체로 이리이러하게 있다거나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것”(70a4-5)으로 규정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욕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70a5-6)을 예로 들고 있다.

23) 매 맞는 아이의 예는 J. Sprute (1982), 75 이하에서 차용.

24) “eikos한 것은 ‘B는 대체로 A이다, C는 B이다, 그러므로 C는 아마도 A일 것이다’ 형식의 논증에서 대전제이다.” W. D. Ross, *Aristotle's Prior and Posterior Analytics*, Oxford 1949, 500.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표지를 갖고 있는 셈이다. 표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론 전서』에서 “그것의 존립이 다른 것의 존재와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또는 그것의 발생이 다른 것의 이전의 발생이나 이후의 발생과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²⁵⁾ 그런 식의 연결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자의 나타남을 후자의 존립이나 생기(生起)의 표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후자의 존립을 주장하는 정립을 표지를 매개로 엔튀메마 형식으로 정초할 수 있다.

표지의 논증 가치는 보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에 의존한다. 보편적인 견해에 따라 표지로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것과 특정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본래적인 의미에서 특정의 것에 대한 표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연결 관계에는 다소 간 큰 개연성만 속할 것이며 그런 개연성이 표지로 주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 표지의 논증 가치는 개연적인 것의 논증 가치와 같다. 표지 위에 세워진 엔튀메마는 개연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엔튀메마처럼 근본적으로 반론을 받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진짜 표지 위에 세워진 엔튀메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틀 안에서 유일하게 논박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표지추론의 논박 불가능성은 무엇보다도 표지와 표지로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것 상호간에 필연적²⁶⁾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 경우 한 사상(思想)의 나타남에서 다른 한 사상의 존립이나 생기를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수사적 논증에서 때때로 표지도 아닌 사상들이 어떤 것의 표지로 주장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표지’(sêmeion)라는 표현을 어떤 것이 엔튀메마 형식의 논증에 가짜 표지로 사용되는 경우들에도 사용한다. 어떤 것의 표지로 간주되는 것은 삼단논법의 구조를 갖는 논증에서 매개념의 자리에 놓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지로 논증하는 데에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바른 것이든 바르지 않은 것이든 간에 3가지

25) 『분석론 전서』 70a7-9 참조.

26) 여기서는 이런 의미의 필연성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의 틀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의 물음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

가능성이 있다. 넓게 ‘표지’라고 하지만, 필연적인 추론의 전제로 기능하는 진짜 표지가 있는가 하면, 형식상 논박이 가능한, 겉보기로만 엔튀메마 같이 보이는 것에서 전제로 사용되는 가짜 표지가 있다. 전자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테크메리온(*tekmērion*, 표지추론)이라 부르고, 후자를 좁은 의미의 표지(*sēmeia*, 의사표지추론)라 부른다(1357b1-5).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테크메리온인 모든 세메이온이 충족시켜야 하는 형식적 조건은 매개념이 어느 자리에 놓여야 세메이온들에서 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석론 전서』 하권 제27장에서 드러내 보이듯이, 이것은 제1격 추론에서만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테크메리온의 예로 어떤 사람이 아픈데 대한 표지로 그의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것과 젖이 나오는 걸로 봐서 출산했다고 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1357b14-16). 표지로 드러난 사태에 관한 주장—열이 난다거나 젖이 나온다 같은—이 참인 한에서(1357b17), 그로부터 도출되는 제1격의, 표지로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것의 존립에 대한 결론, 즉 아프다거나 출산했다와 같은 결론은 논박될 수 없다.

IV. 맺는말

연설가가 수사학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적절한 엔튀메마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 없다면 수사학적 기술 이론에서 엔튀메마를 논하는 것이 연설 현장에서 말을 잘 하는 것에 대해 갖는 유용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철학적으로 볼 때 아무리 관심을 끄는 것이라 할지라도 엔튀메마 이론은 연설가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절한 엔튀메마를 조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연설 작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엔튀메마를 조직하는 데에도 전문적 수단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토포스(*topos*) 이론으로 나타난다. 연설가에게 엔튀메마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여주고 엔튀메마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곧 토포스이다.²⁷⁾

27) 이에 대해서는 W. Wieland, “Aristoteles als Rhetoriker und die exoterischen Schriften”, *Hermes* 86 (1958), 334 참조. 토포스 문제는 여기서 깊이 들어갈 수 없다.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상론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한석환, 「수사학의 학적 위상」, 『철학연구』 67 (2004), 5-23.
- Aristotelis Opera*, ed. I. Bekker, Bde. 1-2, Berlin 1831.
- Hellwig, A., *Untersuchungen zur Theorie der Rhetorik bei Platon und Aristoteles*, Göttingen 1973.
- Patzig, G., *Die aristotelische Syllogistik*, Göttingen 1969³.
- Ross, W. D., *Aristotle's Prior and Posterior Analytics*, Oxford 1949.
- Sprute, J., *Die Enthymemtheorie der aristotelischen Rhetorik*, Göttingen 1982.
- Wieland, W., "Aristoteles als Rhetoriker und die exoterischen Schriften", *Hermes* 86 (1958), 323-346.

Zusammenfassung

Überzeugung und Argumentation -Aristoteles' Theorie Rhetorischer Argumentation-

Hahn, Seok-Whan

Im Rahmen der aristotelischen Reflexionen über Rhetorik ist die Theorie der Argumentation für Aristoteles' Konzeption einer *rhētorikē technē* von grundlegender Bedeutung. Die Theorie der Argumentation muss nach Aristoteles das Kernstück jeder rhetorischen Kunstlehre sein. Der Zweck der Rhetorik, um dessen willen sie betrieben wird, besteht nämlich nach Aristoteles nicht in der Abfassung einer formvollendeten Rede, sondern in der Gründung von Überzeugung.

Unter den Überzeugungsmitteln spielen die argumentativen Mittel offenbar eine besonders wichtige Rolle. Dies ergibt sich für Aristoteles, u. a. aus der Reflexion auf die Bedingungen, unter denen wir am ehesten von einer Behauptung überzeugt sind. Überzeugt von etwas sind wir dann im höchsten Grade, wenn wir es als bewiesen erachten. Der Beweis muss daher ein wirksames Mittel zur Überzeugung sein.

Die Theorie rhetorischer Argumentation - d. i. die Theorie des Enthymems - setzt die aristotelische Syllogistik voraus. Der rhetorische Beweis ist nach Aristoteles ein Enthymem, und das Enthymem ist eine Art des Syllogismus. Die Eigenart des rhetorischen Syllogismus im Unterschied beispielsweise zum wissenschaftlichen Syllogismus ergibt sich aus seinem Anwendungsbereich und aus dem Zweck, zu dem er gebraucht wird.

Im Gegensatz zur Wissenschaft beschäftigt sich die Rhetorik mit

Behauptungen über Sachverhalte oder zu ergreifende Maßnahmen, für die es keine technischen Entscheidungsverfahren gibt, sondern die in der Regel dadurch, dass man mit sich selbst oder anderen zu Rate geht, akzeptiert oder verworfen werden. Um die Entscheidung einer solchen Beratung zu beeinflussen, gebraucht der Redner die Überzeugungsmittel, darunter das Enthymem.

Bei der Bildung von Enthymemen unterscheidet Aristoteles im ganzen vier mögliche formale Konstituenten. Diese vier sind *eikos*, *paradeigma*, *tekmērion* und *sēmeion*. Da das *paradeigma* sich nur dadurch vom *eikos* unterscheidet, dass der Obersatz nicht als *endoxon* vorausgesetzt, sondern erst durch ein oder mehrere Beispiele wahrscheinlich gemacht wird, und da ferner das *tekmērion* ein Sonderfall des *sēmeion* ist, definiert Aristoteles das Enthymem auch als *sylogismos ex eikotōn ē sēmeiōn*.

Die Theorie des Enthymems, so interessant sie, philosophisch gesehen, sein mag, kann dem Redner bei der Ausarbeitung seiner Rede nur dann von Nutzen sein, wenn er in der Lage ist, im konkreten Fall überhaupt geeignete Enthymeme zu bilden. Auch zur Bildung von Enthymemen stellt die aristotelische Rhetorik daher technische Mittel bereit, und zwar geschieht dies in der Lehre von den Topoi.

Key Words: Argumentation, Enthymem, Indiz, Paradeigma, Überzeugung